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에 대한 UN 특별절차 긴급진정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귀중

I. 당사자 정보

A. 진정인

1. 000(‘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2.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B. 담당자 연락처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스탠다드 빌딩 3층
- chaewan.s@minbyun.or.kr

II. 배경

A. 경과

1.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1990년대 초까지 백만 명이 넘는 한국 여성들이 정부가 승인 아래 미군을 위한 성매매에 종사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미군의 규제를 받았던 ‘기지촌’이라는 미군 기지 주변의 지정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동두천은 최대 7,000명의 등록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기지촌이었습니다.¹

¹ Tim Shorrok (2019). Welcome to the Monkey House: Confronting the ugly legacy of military prostitution in South Korea. *The New Republic*, 2 December. Available at <https://newrepublic.com/article/155707/united-states-military-prostitution-south-korea-monkey-house>.

2. 경기도 소요산 자락에 위치한 구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 하에 미군 성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의무적으로 실시된 성병 검진에서 ‘낙검자’로 분류된 여성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군을 위해 국가가 통제하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위안부’ 여성들은 관리소에 강제로 감금되어² 적절한 의학적 절차 및 검사 없이 투여된 고용량의 페니실린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견뎌야 했습니다.³ 이 시설의 별명인 ‘몽키 하우스’는 구금된 여성들이 창문에 매달려 나가려고 소리치는 모습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와 같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여성들이 그곳에서 겪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반영한 것입니다.⁴ 이 시설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미군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위안부’ 여성들의 삶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90년대에 운영된 여섯 개의 시설 중 마지막 시설로, 현재는 폐건물로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B. 최근 동향

3.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후 빈곤을 겪던 국가 경제에 외화를 유입시키기 위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애국적 의무로 홍보하고 정당화했습니다.⁵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지촌과 성병관리소 운영이 미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으로,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⁶ 또한, 대법원은 한국 정부가 기지촌 운영과 관리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을 적절한 의학적 검진 없이 강제 수용하고

² 1981 Dongducheon City municipal ordinance dictates to detain, without hesitation, any Nakgeomja (translated as ‘failed examinees’) at a clinic and seek help from the police and the mayor to confine anyone who refuses to be detained for treat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81). National Archives Database. Available at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922044&dsid=000000000014&gubun=search>. Accessed on 4 September 2024.

³ Sanghun Choe (2023). A Brutal Sex Trade Built for American Soldiers. *New York Times*, 3 May.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23/05/02/world/asia/korea-us-comfort-women-sexual-slavery.html>.

⁴ Minjoo Kim (2024). It has long been an 'eyesore'... What is the reason for opposing the demolition of the 'Monkey House' in the US military camptown?, *Maeil Business Newspaper*, 25 August. Available at <https://www.mk.co.kr/en/society/11101134>.

⁵ Kim, Heejin (2009). Dongducheon: De-Territory, Non-Nation. *Journal BOL*, vol. 9 (Winter), pp. 12-13.

⁶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8Da224408. Decided 29 September, 2022; Minjung Shin (2022). S. Korean Supreme Court rules state must compensate camptown women who worked near US bases. *Hankyoreh*, 30 September. Available at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60899.html.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⁷

4.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앞세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여성 인권 침해의 현장을 담고 있는 유적으로서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0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 보고서는 해당 관리소를 “경기도가 구입해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하라”고까지 권고했습니다.⁹ 그러나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유산 가치를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부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등록 및 지정 절차 등¹⁰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 2024년 8월 12일, 59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리소가 해당 관리소 건물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상징하므로 국가가 이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¹¹ 그러나 2024년 9월 6일, 동두천시 시의회는 소요산 지역 관광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위한 비용 2억 2천만 원이 포함된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¹² 예산이 승인됨에 따라, 특별한

⁷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a2017700. Decided 8 February, 2018; Minkyung Kim (2018). Court find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encouraged prostitution near US military bases. *Hankyoreh*, 9 February. Available at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831625.html.

⁸ Cheongmo Yoo (2024). Civic groups urge Dongducheon to preserve old STD management center. *Yonhap News Agency*, 12 August. Available at <https://en.yna.co.kr/view/AEN20240812006500315>.

⁹ Jung, Hyewon, and others (2020).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Support Policies for Gijichon Women. Gyeonggi Women & Family Foundation, pp. 236. Available at https://www.gwff.kr/storage/old_board_file/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4/202102/6036112a426b61404618.pdf.

¹⁰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지정된 문화유산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 등으로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See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3973&lang=KOR. Accessed on 4 September 2024.)

¹¹ Yoo, *Yonhap News Agency*.

¹² Jaepil Lee (2024). Budget for the demolition of STD management center passed, regional conflict erupts. *Hello TV News*, 6 September. Available at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570>.

사정이 없는 한 동두천시는 10월 중에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관련 법률 및 인권 침해 사항

6. 한국 정부와 미군의 기지촌 운영을 통해 조장하고 권유한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성적 착취 및 강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및 학대행위(Torture and ill-treatment)’이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이 금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며,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팔레르모 프로토콜이 금지하고 있는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환기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지촌에서 이루어진 성적 착취와 강제 성매매는 권위주의 및 독재 시기에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7. 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 인권 기준은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에게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배상의 권리에는 피해자의 ‘만족’이 포함되므로, 당사국은 피해자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피해자의 만족을 위한 조치 중 하나인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는 전환기적 정의의 다섯 번째 축입니다. 기억과 추모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은 이러한 정책이 피해자의 관점을 적절하게 대변하고, 시민 사회, 특히 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수립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¹³

9. 당사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 의무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5조가 규정하는 문화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도

¹³ A/HRC/45/45, para. 104.

이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억압적인 과거 정권의 기념물이나 기념 장소의 보존, 개조 또는 철거에 관한 결정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논의 및 기틀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념물의 철거나 개조는 특정한 역사나 서사를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¹⁴ 따라서 국가는 기억과 추모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며,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¹⁵

10.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성병관리소는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인권 유린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성병관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입니다.

11.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시민사회 및 피해자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철거 계획을 수정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은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의 서사를 지우는 행위라는 점,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피해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 중심 접근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2. 당사국은 2022년 일부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고, 진상을 규명하고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인해 생계와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국제인권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¹⁴ A/HRC/25/49, para. 63.

¹⁵ A/HRC/25/49, para. 106. (b)

IV. 결론 및 요청 사항

13. 위와 같은 사유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유엔 인권 기준에 위배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려를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2.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기념의 장소로 보존하도록 보도자료, 성명, 또는 서한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의 규모와 역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 사과의 현황,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심리적, 의학적 지원에 대해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을 중단하고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정부 사과를 발표하라
 -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진실, 정의 및 구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지체 없는 철저한 재화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라